

## 辛丑版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淸心蓮子湯에 관한 文獻的 研究

김정열\* · 김동준 · 김달래

삼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 Abstract

#### A Literature Study on Taeumin Chungsimyeonjatang on the ShinChukPan Dongyi Suse Bowon

Kim Jeong-Yeol\* · Kim Dong-Jun · Kim Dal-Ra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tinct of Taeumin chungsimyeonjatang on the Shinchukpan Dongyi Suse Bowon through compare with early books' prescription by studying use of Sanyak and Yeonjayuk.

#### Method

This study is reserch to use of Sanyak and Yeonjayuk in early books, Dongyi Suse Bowon-Sasang-chobonkyeon, Gapobon Dongyi Suse Bowon, Shinchukpan Dongyi Suse Bowon and Dongyibogam, Taepyungheymin-hwajegukbang in sequence of date. with this, we study a base of virtue of Taeumin chungsimyeonjatang.

#### Result and conclusion

1. Taeumin chungsimyeonjatang is a prescription of treatment Gonscratia and CVA.
2. Taeumin chungsimyeonjatang is base on Chungsimyeonjaum in Dongyibogam.
3. The chief virtue of Taeumin chungsimyeonjatang is accord with all prescription after 1894's Gapobon Dongyi Suse Bowon

**Key word:** Taeumin chungsimyeonjatang, Sanyak and Yeonjayuk, Chungsimyeonjaum

### I. 緒 論

현재 四象處方을 주로 쓰는 醫家들의 臨床에서 淸心蓮子湯이라는 處方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내에서 이 處方의 쓰임을 알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의 太陰人處方은 대부분 葛根 또는 麻黃이 들어가는 處方들로 構

成되어 있다.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二十四方」中 瓜蒂散, 熊膽散, 麝香散은 단일약으로 構成된 處方이라 제외하면 葛根과 麻黃이 없는 處方은 淸心蓮子湯, 補肺元湯, 拱辰黑元丹, 乾栗蟻螬湯, 乾栗栲根皮湯, 石菖蒲遠志散, 麥門冬遠志散, 牛黃淸心元으로 총 8개 處方이다. 즉, 대부분의 太陰人 處方은 麻黃이 들어가는 處方과 葛根이 들어가는 處方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淸心蓮子湯에는 葛根과 麻黃이 아닌 蓮子肉과 山藥이 君藥으로 구성된다.

접수일 2004년 3월 30일; 승인일 2004년 4월 19일

\* 교신저자: 김 정 열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6-1 2층 노옥당한의원

Tel: +82-2-883-7500 E-mail: do1024@hanmail.net

蓮子肉과 山藥은 新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太陰人處方에서는 淸心蓮子湯을 제외하고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이 藥材들의 쓰임을 알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新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에서 淸心蓮子湯이라는 處方名은 언급되나 原文중에는 관련 條文이 전혀 보이지 않고 主治證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이 處方의 쓰임을 파악하기란 더욱더 쉽지 않다. 그래서, 臨床醫들은 淸心蓮子湯의 主治證에 많은 혼동과 의문을 갖는다.

그나마 淸心蓮子湯의 主治證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東醫四象新編』<sup>2</sup>과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에 약간 언급되어있을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淸心蓮子湯의 主治證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臨床에서는 淸心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모호하게 處方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四象處方을 後世的 시각으로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과 이후의 新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을 비교해 볼 때 太陰人의 病證과 處方부분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淸心蓮子湯은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에서부터 등장하고 있고,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의 「新定太陰人病應用要藥十七方」中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으로 改抄되면서 麻黃發表湯, 麻黃定喘湯, 葛根解肌湯, 淸心蓮子湯, 皂角大黃湯, 熊膽散, 麝香散 등 7개 處方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다. 즉 많은 處方들이 사라지고 오직 7개 處方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이중 하나가 淸心蓮子湯이다. 6년 동안 改抄하면서 이 處方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이 處方의 쓰임을 李濟馬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蓮子肉의 경우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 31種의 處方中 3種에 등장하고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 17種의 處方中 2種에 등장하고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24種의 處方中 1種에서 유일하게 들어있다.

山藥의 경우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 31種의 處方中 6種에 등장하고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 17種의 處方中 4種에 등장하고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24種의 處方中 4種에서 등장한다.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 보다는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이나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에서 蓮子肉과 山藥의 쓰임이 좀더 많았는데 이를 통해 文獻적으로 연구해본다면 淸心蓮子湯을 研究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研究方法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의 新定方은 李濟馬의 處方에 관한 종결점이라 할 수 있다. 新定方부분의 處方들은 李濟馬의 독창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處方들인데 그의 이러한 創方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에서부터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시기를 거쳐 處方이 다듬어지고 그의 임상경험이 덧붙여지면서 處方의 완결성이 추구되어 진다. 또한 既存處方에서의 應用도 新定方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母處方이라 할 수 있는 既存處方을 살펴 李濟馬의 創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에 임한다.

1. 본 研究는 蓮子肉과 山藥의 두 藥材를 중심으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부터 藥材의 쓰임을 살펴보고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 辛丑版 『東醫壽世保元』<sup>1</sup>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藥材의 쓰임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甲午本 『東醫壽世保元』<sup>4</sup> 少陰人論에 “因許浚東醫寶鑑所載 摘取張仲景傷寒論文及諸家所論 抄集一通 別附疑難 以爲太少陰陽四象人傷寒時氣表裏病論而”라고 하여 『東醫寶鑑』<sup>6</sup>에서 張仲景을 비롯한 諸家の 所論들을 引用하였고, 당시 醫書中 『東醫寶鑑』<sup>6</sup>을 가장 熟讀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李濟馬의 新定方부분의 處方名은 『東醫寶鑑』<sup>6</sup>의 處方名과 유사한 것들이 많으며 이는 『東醫寶鑑』<sup>6</sup>에서 그 處方名을 연구하면 新定方에 수록된 處方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즉, 李濟馬가 藥材를 사용하거나 處方을 創方하는데 있어 『東醫寶鑑』<sup>6</sup>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東醫寶鑑』<sup>6</sup>을 참고하여 辛丑版 『東醫壽世

保元』<sup>1</sup> 清心蓮子湯의 근거가 될 수 있는 主治證을 연구해 보았다.

-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sup>5</sup>의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의 處方構成과 主治證을 살펴보았다.
- 2) 甲午本『東醫壽世保元』<sup>4</sup>의 清心山藥湯과 清心蓮子湯의 處方構成과 主治證을 原文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辛丑版『東醫壽世保元』<sup>1</sup> 清心蓮子湯과의 處方構成과 用量을 比較하였다.
- 3) 『太平惠民和劑局方』 處方인 清心蓮子飲을 중심으로 『東醫寶鑑』<sup>6</sup>에서의 證狀과 主治證을 살펴보았다.
- 4) 『東醫四象新編』<sup>2</sup>과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을 통해 清心蓮子湯의 運用例를 살펴보고, 蓮子肉과 山藥을 중심으로 한 處方の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2. 본 研究에서 사용할 版本의 名稱은 다음과 같이 임의로 定하였다.

- 1) 『咸山沙村 甲午抄錄本』을 통해 復元한 甲午年의 『東醫壽世保元』을 ‘甲午本’이라 稱하였다.
- 2) 活字화된 1901年(辛丑年) 初版本『東醫壽世保元』을 ‘辛丑版’이라 稱하였다.
- 3) 『東醫四象新編』은 ‘四象新編’이라 稱하였다.
- 4) 1951年 金九翊이 筆寫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金達來가 編譯한 『東醫壽世保元草藥』를 ‘草本卷’이라 稱하였다.

### III. 本 論

#### 1. 草本卷의 加味麥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分析

草本卷의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을 중심으로 處方構成과 主治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草本卷 第3卷 太陰人處方 第4統에 보면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이라는 處方이 있는데 이 處方들로서 清心蓮子湯의 主治證을 알 수 있다.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이 清心蓮子湯의 母

표 1. 草本卷의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 (단위: 錢)

處方構成	九味天門冬湯	清心山藥湯
麥門冬	1	1
天門冬	1	1
山藥	1	3
遠志	1	2
石菖蒲	1	1
酸棗仁	1	1
元肉	1	1
柏子仁	1	1
甘菊花	1	0.5
蓮子肉		1
桔梗		1
黃芩		1
主治證	治 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	治 虛勞 夢泄 腹痛 泄瀉 舌卷不語 中風證

處方이라 할 수 있지만 清心山藥湯이 더욱더 母處方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草本卷에서의 蓮子肉과 山藥이 동시에 들어있는 處方은 清心山藥湯뿐이고, 九味天門冬湯은 主治證이 辛丑版의 清心蓮子湯과 비슷할 뿐이다.

이 두 處方の 主治證에서의 공통된 證은 夢泄證이다. 夢泄證은 甲午本 「太陰人 內觸胃腕病論」에 보면 “虛勞夢泄與 無腹痛中風 爲裏之裏病”라고 되어 있듯이 裏之裏病이라고 하여 裏病에 배속하였고, 辛丑版에서도 太陰人 泛論에 보면 “太陰人證 有夢泄病 一月內 三四發者 虛勞重證也 大便秘一日則 宜用 熱多寒少湯 加大黃一錢 大便每日不秘則 加龍骨 減大黃 或用 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이라하여 夢泄病을 역시 裏病에 배속하였다.

太陰人篇에서는 甲午本과 辛丑版에서의 表裏之表裏病의 구분에 많은 차이가 보이는데 이 夢泄病에서만은 두 版本에서의 차이가 보이질 않고 太陰人 이외의 다른 體質에서는 夢泄病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李濟馬는 草本卷 때부터 이미 太陰人 夢泄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甲午本의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分析과 辛丑版 淸心蓮子湯과의 處方構成 및 用量 比較·分析

甲午本의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을 중심으로 處方構成과 主治證을 原文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辛丑版 淸心蓮子湯과의 處方構成과 用量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甲午本의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와 辛丑版 淸心蓮子湯과의 處方構成 및 用量 比較 (단위: 錢)

處方 處方構成	甲午本 淸心山藥湯	甲午本 淸心蓮子湯	辛丑版 淸心蓮子湯
麥門冬	1	2	1
天門冬	1	1	1
山藥	3	1	2
遠志	2	1	1
石菖蒲	1	1	1
酸棗仁	1	1	1
龍眼肉	1	1	1
柏子仁	1	1	1
甘菊花	0.5	0.5	0.3
蓮子肉	1	3	2
桔梗	1	1	
黃芩	1	1	1
蘿卜子			1
主治證	無腹痛下利而有舌卷不語中風病, 有夢泄病		原文에 보이질 않음

甲午本에서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의 운용례를 살펴보면 甲午本 「太陰人 內觸胃脘病論」에 “太陰人一證 無腹痛下利而有舌卷不語中風病 危急證也 不可瞬息遲滯而急治 當用 牛黃救急 因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太陰人一證 有夢泄病 其病 爲虛勞而 思慮所傷也 太重且難 不可不急治 必禁嗜慾 戒修樂 此證 當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 加龍骨一” 이라 하였다.

甲午本에서는 淸心山藥湯과 淸心蓮子湯의 두 處方간의 구분은 보이질 않는데 이 두개의 處方을 위의 경우에 동시에 사용하는 運用例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3에서 보듯이 草本卷 淸心山藥湯과 甲午本 淸心山藥湯은 處方구성과 用量은 동일하나 主治證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바로

腹痛泄瀉와 無腹下利이다. 草本卷 淸心山藥湯은 腹痛泄瀉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甲午本 淸心山藥湯은 無腹痛下利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표 3. 草本卷 淸心山藥湯과 甲午本 淸心山藥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

處方 比較	草本卷 淸心山藥湯	甲午本 淸心山藥湯
處方構成과 用量	同 一	
主治證	治 虛勞 夢泄 腹痛 泄瀉 舌卷不語 中風證	無腹痛下利 而有舌卷不語中風病, 有夢泄病

甲午本 「太陰人 內觸胃脘病論」에 보면, “太陰人一證 小兒大人 有腹痛下利 舌卷不語中風病 其病 重險證也 不可不急治 當用 桔梗生脉散 調服麝香太陰人一證 無腹痛下利而 有舌卷不語中風病 危急證也 不可瞬息遲滯而急治 當用 牛黃救急 因用 淸心山藥湯 淸心蓮子湯腹痛自利 食滯痞滿 痢疾 浮腫 爲裡之表病, 虛勞夢泄與無腹痛中風 爲裡之裡病 太陰人中風 有二證 有腹痛中風 裡之表病也 無腹痛中風 裡之裡病也”라 하였다.

李濟馬는 太陰人 中風을 크게 2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유추된다. 즉, 腹痛下利中風과 無腹痛下利中風으로 나뉘는데 甲午本에 보면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의 구분이 腹痛下利中風과 無腹痛下利中風인 것이다.

즉, 草本卷에서 李濟馬는 裏之表病에 淸心山藥湯을 사용하였는데 甲午本으로 오면서 裏之裏病에 淸心山藥湯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즉, 甲午本에서는 淸心山藥湯의 사용이 명확하게 변화된 것이다. 이것이 辛丑版으로 가면서 原文에는 위와 같은 中風의 내용은 전혀 보이질 않고 瓜蒂散과 牛黃淸心丸을 쓰는 目瞪과 眼合의 경우로만 언급되어진다.

辛丑版 「太陰人泛論」에 보면, “太陰人證 有卒中風病 胸臆格格 有窒塞聲而 目瞪者 必用 瓜蒂散 手足拘攣 眼合者 當用 牛黃淸心丸 素面色黃赤黑者 多有目瞪者 素面色青白者 多有眼合者 面色青白而眼合者 手足拘攣則 其病 危急也 不必待拘攣 但見眼合而素面色青白者 必急

用 清心丸 古方清心丸 每每神效 目瞪者 亦急發而稍緩 眼合者 急發 急然 目瞪者 亦不可以緩論而急治之”라 하여 평소 面色이 黃赤黑者는 目瞪이 많고, 평소 面色이 靑白者는 眼合이 많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腹痛泄瀉의 有無로써 中風의 二大證을 구분하기보다는 筭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面色과 眼部의 관찰로써 太陰人 急證인 中風을 대치하는 모습이 보인다.

甲午本 清心蓮子湯과 清心山藥湯의 處方에서 辛丑版 清心蓮子湯으로 넘어오면서 公히 蓮子肉과 山藥을 2錢으로 한 것이 獨하고 桔梗이 빠지고 蘿卜子가 들어간다. 蘿卜子는 草本卷에서는 다양하게 쓰이던 藥材이지만 李濟馬의 甲午本 處方에서는 사라진다. 그러나, 辛丑版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9개의 處方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그리고, 甲午本의 清心山藥湯과 清心蓮子湯의 運用例에서 보듯이 2개의 處方간의 뚜렷한 구분점이 없고 處方構成도 동일하기 때문에 2개 處方中 清心山藥湯은 사라지고 清心蓮子湯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3. 『太平惠民和劑局方』處方인 清心蓮子飲을 중심으로 『東醫寶鑑』에서의 證狀과 主治證 比較·分析

『太平惠民和劑局方』處方인 清心蓮子飲을 중심으로 『東醫寶鑑』<sup>6</sup>에서의 證狀과 主治證을 위주로 살펴보기 위해, 『東醫寶鑑』<sup>6</sup>에 언급되어있는 『太平惠民和劑局方』 清心蓮子飲의 구성을 辛丑版 清心蓮子湯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東醫寶鑑』<sup>6</sup>에서 清心蓮子飲이 언급되어있는 곳을 보면 《內景篇》에 5곳, 《外形篇》에 1곳, 《雜病篇》에 2곳으로 총 8곳에서 清心蓮子飲이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첫째, 《內景篇》精門 精滑脫屬虛에서 “童男陽盛 情動於中 志有所慕而 不得遂成 夜夢而遺精 慎不可補 清心乃安 朝服 清心蓮子飲, 暮服 定志丸”하여 主治證은 遺精 夢精과 清心을 알 수 있다.

둘째, 《內景篇》精門 白淫에서 “張子和曰 莖中作痛 痛極則 痒或陰莖挺縱不收

표 4. 『太平惠民和劑局方』의 清心蓮子飲과 辛丑版 清心蓮子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 (단위: 錢)

處方構成	『太平惠民和劑局方』 清心蓮子飲	辛丑版 清心蓮子湯
麥門冬	0.7	1
天門冬		1
山藥		2
遠志		1
石菖蒲		1
酸棗仁		1
龍眼肉		1
柏子仁		1
甘菊花		0.3
蓮子肉	2	2
黃芩	0.7	1
蘿卜子		1
赤茯苓	1	
人參	1	
黃芪	1	
車前子	0.7	
地骨皮	0.7	
甘草	0.7	
主治證	治心火上炎 口乾煩渴 小便赤澀	原文에 보이질 않음

或出白物如精隨溲而下得之於房室勞傷及 邪術所使 宜以降 心火之劑 下之宜 服瀉心湯, 清心蓮子飲”라 하여 白淫 滑精 降心火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內景篇》小便門 小便不利에서 “上盛下虛 小便赤澀 或欲成淋 宜 清心蓮子飲, 導赤散”라 하여 小便赤澀 淋病등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內景篇》小便門 赤白濁에서 “赤濁 宜 加味清心飲, 清心蓮子飲”라 하여 주로 赤濁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內景篇》小便門 莖中痒痛에서 “莖中痒 出白津 多因脾土不足 不能滋生金水 以致肝經血虛 火燥 宜 補中益氣湯 與 清心蓮子飲 間服. 盖脾胃爲肝腎之源 心實主之”라 하여 莖中痒, 出白津(白淫)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外形篇》前陰門 筋疝藥에서

“宜瀉心湯, 加減柴苓湯, 清心蓮子飲, 龍膽瀉肝湯”라 하여 筋疝證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雜病篇》火門 熱有晝夜之分에서 “氣分實熱 白虎湯, 血分實熱 四順清涼飲, 氣分虛熱 清心蓮子飲, 血分虛熱 滋陰降火湯”라 하여 氣分虛熱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여덟째, 《雜病篇》消渴門 消渴有三에서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膈消是也 白虎加人參湯主之(卽人參白虎湯也) 治能食而渴 若不能食而渴 宜 加味錢氏白朮散, 又 麥門冬飲子, 降心湯, 人參石膏湯, 清心蓮子飲, 和血益氣湯, 生津養血湯, 黃芩湯 皆治上消”라 하여 上消證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위의 8곳에서 清心蓮子飲이 쓰이는데 이때 清心蓮子飲과 같이 쓰이는 處方을 살펴보면 定志丸, 瀉心湯, 導赤散, 加味清心飲, 補中益氣湯, 加減柴苓湯, 龍膽瀉肝湯, 加味錢氏白朮散, 麥門冬飲子, 降心湯, 人參石膏湯, 和血益氣湯, 生津養血湯, 黃芩湯 등 총 14處方이다. 14處方들에서 蓮子肉과 山藥이 동시에 들어있는 處方은 하나도 없다. 이 處方들 가운데서 蓮子肉이 君藥으로 쓰이는 處方이 하나 있는데 바로 加味清心飲이다. 표5에서 보듯이 『太平惠民和劑局方』의 清心蓮子飲과 『世醫得效方』의 加味清心飲은 主治證이 비슷하다.

이를 비교해보면 둘 다 蓮子肉이 君藥으로 구성되면서 心熱을 다스리는 處方임을 알 수 있다. 『太平惠民和劑局方』과 『世醫得效方』의 著作時期를 보면 『太平惠民和劑局方』은 宋의 太平惠民和劑局的 醫書이고, 『世醫得效方』은 元의 危亦林的 醫書이다. 따라서, 危亦林的 加味清心飲이 清心蓮子飲의 變方으로 생각된다.

4. 『四象新編』과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을 통한 清心蓮子湯의 運用例 分析과 清心蓮子湯의 발전방향을 모색

『四象新編』과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을 통해 清心蓮子湯의 運用例를 살펴보고 清心蓮子湯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에서도 清心蓮子湯이 있는데 이곳의 處方도 辛丑版 處方構成과 用量이

同一하다.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에서도 主治證이 治 虛弱, 夢泄, 無腹痛泄瀉, 口噤不語, 中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無腹痛泄瀉라는 점에 유의한다면 역시 甲午本의 主治證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의 著作時期가 庚子年(1900年)이므로 당시의 清心蓮子湯은 辛丑版의 清心蓮子湯과 동일함이 당연할 것으로 主治證도 또한 확정되어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四象新編』에는 清心山藥湯과 清心蓮子湯이 있는데 清心山藥湯은 甲午本의 清心山藥湯이 실려 있고 清心蓮子湯은 辛丑版의 清心蓮子湯이 실려 있다. 즉, 甲午本의 清心山藥湯과 辛丑版의 清心蓮子湯이 1920년대 당시에 유행했던 處方임을 유추할 수 있다. 四象新編에서는 主治證이 명확히 적혀 있는데 “治 虛勞 夢泄 無度腹痛泄瀉 舌卷 中風 食滯 胸腹痛”이라고 되어있어 甲午本의 主治證과 비슷하다.

『四象新編』의 外篇의 用藥彙分을 살펴보면 표5에서처럼 清心蓮子湯을 임상에서 응용하는 예를 알 수 있는데 尹<sup>7</sup>의 연구에 의하면 清心蓮子湯이 『四象新編』에서의 사용빈도가 太陰人 處方中 4번

표 5. 『太平惠民和劑局方』清心蓮子飲과 『世醫得效方』加味清心飲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 比較 (단위: 錢)

處方 處方構成	『太平惠民和劑局方』 清心蓮子飲	『世醫得效方』 加味清心飲
麥門冬	0.7	0.8
遠志		0.8
石菖蒲		0.5
蓮子肉	2	1.5
黃芩	0.7	
赤茯苓	1	
白茯苓		1.5
人參	1	0.8
黃芪	1	
車前子	0.7	0.5
地骨皮	0.7	
甘草	0.7	0.5
益智仁		0.8
白朮		0.5
澤瀉		0.5
燈心		20莖
主治症	治心火上炎 口乾煩渴 小便赤澀	治心熱 小便赤濁

표 6. 『四象新編』에서의 清心蓮子飲의 應用

病名問	病名
風門	調氣
暑門	暑滯
火門	骨蒸
內傷門	倒飽, 不思飲食
霍亂門	嘔吐 乾嘔
積聚門	六鬱
脹滿門	食脹 鼓脹
精門	夢遺 白淫
氣門	七氣 氣鬱 九氣
血門	吐血 尿血 便血
大便門	滯泄 虛泄 腎泄 痢
小便門	莖中痒痛
面門	面熱
腹痛門	

재로 많은 處方임을 알 수 있다.(표 6.)

清心蓮子湯을 기본으로 하여 構成된 臨床處方을 살펴보면 『四象新編』에 당시에 유행하던 太陰人 經驗方이라고 하여 蓮子肉과 山藥이 主劑로 사용되는 處方이 보이는데 加味清心湯이라는 處方이다. 이 處方은 清心蓮子湯에 薏苡仁을 5錢을 加한 것으로서 표6에서 보듯이 薏苡仁을 5錢 加하여 血證질환에 다양하게 應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清心蓮子湯을 쓰고자 할 때 血證이 보이면 薏苡仁을 加하여 사용하는 臨床例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로써 清心蓮子湯이 더욱 더 발전된 處方의 형태로 나타난다.(표 7.)

표 7. 加味清心湯의 處方構成 및 主治證과 加減例

處方構成	清心蓮子湯에 薏苡仁 5錢을 加한 處方
主治證	衄血 吐血 下血 怔忡 皆有效
加減	加 大黃二錢 治婦人月經時全身疼 又有帶下症

#### IV. 結 論

1. 草本卷에서의 九味天門冬湯과 清心山藥湯은 辛丑版 清心蓮子湯의 母處方이라 할 수 있고, 清

心山藥湯 이 더욱더 母處方에 가깝다. 이 두 處方은 主治證이 비슷한데 주요한 것은 腹痛泄瀉라는 病證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두 處方간의 主治證의 공통점은 夢泄病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清心山藥湯은 甲午本의 清心山藥湯과는 處方構成이 同一하나 主治症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草本卷의 清心山藥湯은 腹痛泄瀉에 사용하고 甲午本의 清心山藥湯은 無腹痛泄瀉에 사용한다. 또한 李濟馬는 이미 草本卷 시기부터 太陰人 夢泄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甲午本 處方에서는 蓮子肉과 山藥이 동시에 들어있는 處方이 清心山藥湯과 清心蓮子湯의 2개의 處方이 보이는데 處方구성은 서로 같고 단지 蓮子肉과 山藥의 用量이 서로 다르다. 甲午本의 條文들에서는 이 2개의 處方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사용함을 알 수 있고 나중에 辛丑版으로 넘어오면서 清心山藥湯이라는 處方名은 사라지고 清心蓮子湯의 處方名만 남게 된다. 또한, 甲午本에서는 草本卷에서와 달리 無腹痛泄瀉에 이 處方을 사용한다고 확정짓고 있다.

李濟馬는 中風疾患에 있어 裏病에 배속하면서도 裏之表病과 裏之裏病으로 그 중에서도 輕重을 두고 있다. 中風患者가 腹痛泄瀉를 하면 裏之表病에 넣어 輕證으로 분류하고 中風患者가 無腹痛泄瀉이면 裏之裏病에 넣어 重證으로 배속한다. 甲午本의 清心山藥湯과 清心蓮子湯은 모두 裏之裏病에 속하는 中風을 치료하는 處方임을 알 수 있다.

3. 李濟馬가 清心蓮子湯이라는 處方名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東醫寶鑑』<sup>6</sup>의 清心蓮子飲이라는 處方을 참고하였음을 전제로 『東醫寶鑑』<sup>6</sup>의 清心蓮子飲을 살펴보면 총 8군데에서 清心蓮子飲이 등장한다. 內景篇에 5곳, 外形篇에 1곳, 雜病篇에 2곳으로 총 8군데이다.

處方構成에 있어서는 辛丑版의 清心蓮子湯과 많이 다르다. 두 處方간의 공통약물은 蓮子肉과 黃芩인데 蓮子肉이 君藥이라는 공통점은 있다. 아무래도 李濟馬는 清心蓮子飲에서 蓮子肉의 쓰임을 설정했던 것 같다. 『東醫寶鑑』<sup>6</sup>의 清心蓮子

飲과 함께 쓰이는 處方은 14종의 處方이 있는데 이 중에서 蓮子肉이 君藥으로 쓰이는 處方은 『世醫得效方』의 加味淸心飲이다. 『世醫得效方』의 加味淸心飲과 『太平惠民和劑局方』의 淸心蓮子飲은 主治證이 비슷한데 역시 蓮子肉이 君藥이라는 것이 공통이다.

4.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에 등장하는 淸心蓮子湯은 辛丑版의 淸心蓮子湯과 構成 및 主治證이 同一하다. 즉, 甲午本(1894年) 이후로의 모든 書籍에서는 淸心蓮子湯의 主治證에 일관성이 보인다. 『東醫壽世保元補編』<sup>3</sup>도 1900年の 작품이므로 이러한 일관성이 보인다. 『四象新編』에서는 淸心蓮子湯이 太陰人 處方중에서 4번째로 運用例가 많은데 이는 辛丑版의 淸心蓮子湯을 당시의 四象處方을 活用하는 醫家들에 있어서 중요한 處方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處方의 主治證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것도 또한 甲午本이후로의 일관성에도 일치한다.

『四象新編』에서는 淸心蓮子湯을 응용해 새로운 處方이 등장하는데 薏苡仁 5錢을 가해서 加味淸心湯이라는 處方이 있다. 당시 醫家들에게서 위의 加味淸心湯도 많이 活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加味淸心湯은 血證疾患에 주로 쓰이는

데 예를 들면 衄血, 下血, 吐血 等이다. 四象新編의 淸心蓮子湯에도 血門에 사용한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薏苡仁을 加하면 더욱더 血門쪽으로 處方의 효과가 치우침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901年版(初版本) 影印本. 四象醫學會刊行. 서울: 大星文化社. 1998
2. 元持常. 金政烈編譯. 東醫四象新編.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02:189, 227.
3. 金達來譯編. 東醫壽世保元補編. 서울: 대성의 학사. 2002:141
4. 咸山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간행. 서울: 2000:50, 53
5. 李濟馬, 金達來編譯. 東醫壽世保元草藁. 서울: 정담. 1999:103, 110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8:84-85, 170, 177-179, 313, 418, 506.
7. 윤보현, 박성식. 東醫四象新編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2001;13(2) : 28-48